

올림픽 향해 싸라...광주서 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오늘 개막 27일까지 남녀 8명 씩 선발...내달 2차례 순위 평가전

이승윤·최미선·안산·최민선 등 광주·전남 4명 태극마크 도전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남녀 양궁선수들이 뒷날에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다툰다.

2021년을 빛낼 양궁 국가대표 최종 관문인 제3차 선발전이 22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선수 등 경기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 인원 출입을 통제한다.

이번 선발전은 지난해 1, 2차 관문을 통과한 남녀 39명이 참가, 태극마크를 놓고 경쟁한다.

광주·전남에서는 4명이 출전, 태극마크를 노린다. 지난 17일 창단한 남구청 유니폼을 입은 이승윤이 남구청 소속으로 첫 대회에 출전한다.

이승윤과 최미선(순천시청)은 남다른 각오로 사대에 선다. 이들은 리우에 이어 도쿄올림픽까지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안산(광주여대)은 태극마크 수성은 물론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전 국가대표 최민선(광주시청)은 태극마크 탈환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광주·전남 선수들을 포함한 태극마크 예비 후보들은 22일 1회전인 오전 공식연습과 1차 기록경기

(70m·36발)를 치르고 오후에 2, 3, 4차 기록경기(70m·36발) 결과에 따라 남녀 각각 16명씩을 가리게 된다.

이후 23일 토너먼트와 리그전(동시발사), 24일 토너먼트와 15발 기록경기(동시발사)로 진행되는 2-3회전 경기 결과 남녀 각각 12명씩을 선발한다.

25일과 26일에는 4~5회전 6강 리그전(교대발사)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7일 6회전 6강 리그전(교대발사)과 15발 기록경기(동시발사)로 순위를 가려 2021년 국가대표 남녀 각각 8명씩을 확정한다.

선발된 남녀 1~8위 선수들은 내달 5~9일(부산), 19~23일(강원) 2차례 순위 평가전을 통해 상위 3명이 도쿄올림픽 진출 티켓을 거머쥔다.

박재순(광주시청 감독) 양궁 국가대표 총감독은 "이번 선발전에 나서는 선수들은 세계 최강인 한국 양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니만큼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며 "다만 누가 흔들림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느냐 여부가 태극마크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통과한 대한민국 양궁선수들이 22일 3차 선발전을 앞두고 광주시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광주시 양궁협회 제공>

표승주 vs 김미연... '서브 폭탄'을 버텨라

오늘 기업은행-흥국생명 PO 2차전

1차전에서 두 선수에 서브 절반 몰려

리시브 성공률 따라 승패 가를듯

예상대로 흥국생명은 표승주(29·기업은행)를 향해 '서브 폭탄'을 날렸다.

IBK기업은행도 김미연(28·흥국생명)에서 서브를 집중했다.

플레이오프(PO·3전 2승제) 1차전에서는 김미연이 표승주보다 조금 더 잘 버텼다. 승리도 흥국생명이 쟁겼다.

흥국생명은 지난 20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PO 1차전에서 IBK기업은행을 세트 스코어 3-1(25-20 23-25 25-18 25-21)로 눌렀다.

박희희 흥국생명 감독이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에서 공언한 대로, 흥국생명 선수들은 표승주를 향해 서브를 날렸다.

흥국생명의 서브 89개 중 절반에 가까운 44개를 표승주가 받았다.

이날 표승주의 리시브 효율은 18.19%에 그쳤다. 세터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간 리시브는 10개 뿐이었고, 리시브 실패는 2개를 범했다.

자신의 올 시즌 정규리그 리시브 효율 27.57%보다 낮은 수치였다.

표승주의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기업은행 세터 조송화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속공 등 약속된 플레이도 펼치기 어려웠다.

리시브 부담은 공격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서브 폭탄에 시달린 표승주는 이날 13.79%의 낮은 공격 성공률로 5득점에 그쳤다.

김미연은 이날 팀이 받은 서브 76개 중 절반 이상인 40개를 리시브했다. 김미연의 리시브 효율은 35%였다.

김미연은 15개를 세터 머리 위로 올렸고, 리시브 범실을 1개 했다.

아주 안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개인 정규리그 리시브 효율 22.64%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난 20일 인천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플레이오프 1차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경기. 3세트 흥국생명 김미연(왼쪽)의 공격을 IBK 표승주가 수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미연은 공격 성공률은 21.73%로 낮았지만, 블로킹 2개와 서브 에이스 2개 등으로 9득점 하며 '제2의 레프트 역할'을 준수하게 했다.

김우재 기업은행 감독은 1차전 패배 후 "공격과 수비 모두 잘 풀리지 않았다"며 "양 팀 모두 서로 서브 리시브를 흔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흔들리고 상대 리시브 라인엔 흔들지 못했다"고 했다.

22일 화성체육관에서 열리는 PO 2차전도 서브들은 표승주와 김미연을 바라본다.

표승주가 공에서 모두 살아나면, 김우재 감독의 고민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

흥국생명도 김미연이 최소한 1차전만큼은 버텨야, 목표대로 2차전에서 PO를 끝낼 수 있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해외관중 안 받는다

일정·IOC 등 5자 회의 후 공식 발표...국내 관중도 절반 감축

올해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때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공식 결정됐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東京都), 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20일 저녁 온라인 5자 회의를 하고 이날 이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함에 따라 일본 국민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현재 일본 정부가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백만 명이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도쿄올림픽 경기 일본 방문객을 받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날 5자 회의에는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대회 조직위 회장과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일본 정부 올림픽담당장,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열린 첫 5자 회의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때 해외 관중 수용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판매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티켓은 63만 장으로 이에 대한 환불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조직위는 해외에 거주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자원 봉사단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 관중 상한선은 다음 달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조직위는 ▲관중 상한 없음 ▲관중 50% 삭감 ▲무관중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경기장 관중 수용 인원의 50%만 받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한편, IOC와 IP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올림픽 참가자와 일본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번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부활' 심석희 쇼트트랙 2관왕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서울시청)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내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심석희는 지난 19일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36회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여자 일반부 1000m 결승에서 1분30초 51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약 4개월 만에 열린 실전 대회지만, 심석희는 물론인 기량을 자랑하며 전날 1500m에 이어 이날까지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첫 바퀴부터 선두로 치고 나선 그는 요령 있게 다른 선수들을 견제하며 자리를 내주지 않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소연(스포츠포토·1분30초749)이 2위로 뒤따랐다.

1500m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실격 처리돼 아쉬움을 삼킨 최민정(성남시청)은 이날 1분31초037로 3위를 기록했다.

남자 일반부 1000m 결승에서는 박지원(서울시청)이 1분27초365로 우승했고, 김동욱(스포츠포토)은 1분27초402로 2위를, 이성훈(성남시청·1분27초566)이 뒤를 이었다.

여자 일반부 3000m에서는 노도희(화성시청·5분05초251)가, 남자 일반부 3,000m에서는 홍경환(고양시청·5분49초351)이 1위에 올랐다.

홍경환은 전날 1500m 우승에 이어 대회 2관왕이 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미나리
- 2관 소울, 모리타니안, 웨이 다운
- 3관 라이와 마지막 드래곤, 모리타니안, 웨이 다운
- 4관 미션 파서블
- 5관 미나리, 리스트
- 6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리스트, 라라의 신비한 모험
- 7관 세세커플 정말 먼 곳, 미션 파서블
- 8관 세세커플 라이와 마지막 드래곤, 통과 제리 그녀가 사라졌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산책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

